

25.05.29.(목)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아리따움 가맹점주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정책제안 ...

“생존권 보장, 공정거래 질서확립 시급”

오늘(5/29)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책제안식 진행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에 정책을 제안하고, 가맹점주 생존권을 보장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책제안식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제안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에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가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날 행사에는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이관구·김익수 공동회장, 임승혁 고문, 정영숙·김현권 부회장, 정연선·문윤기 사무처장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는 총 5가지로 ▲가맹점주 단체 등록 및 협상권 제도화 ▲광고·판촉비 본부 분담 의무화 ▲온라인영업 지역 명시 및 보호 ▲가맹사업 철수 시 점주 보호 장치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이다.

민병덕 위원장은 “작년에 을지로위원회에서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와 본사 상생협약을 중재한 바 있다.” 며 “오늘 다섯 가지 제안은 본사에게 ‘합의했으면 지켜 달라, 일한 만큼은 받게 해 달라, 영업할 구역은 지켜 달라, 갑자기 철수하면 살 길은 열어 달라, 불공정엔 책임지게 해 달라’ 는 가맹점주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 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사는 점주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현장의 고통은 숫자로만 계산되고 있다.”며 “가맹점주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협상권 등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제도적·입법적 역할을 고민하겠다.”며 “작년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한 본사와의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반드시 잘 지켜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구 공동회장은 “아리따움 가맹점주들은 올리브영 등 멀티숍에 대해 대리점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차별받는다.”며 “고객정보를 빼돌려 온라인판매에 이용하고, 가맹점 전용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등 본사 횡포로 생존위기에 몰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상생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통한 실효성 있는 권리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이번 정책제안이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고, 본사와의 교섭에서도 강력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행사 사진]

